

“일상생활에서 유네스코 운동 펼쳐 인종·성별 차별 없는 사회 만들자”

창립 44돌 맞는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 이몽룡 회장

“평화와 인권을 추구하는 유네스코의 이념을 다문화 사회로 급변하고 있는 지역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13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메리어트 웨딩홀에서 열린 유네스코(UNESCO, UN교육과학문화기구) 광주·전남협회의 ‘창립 제44주년 기념식 및 제13회 국제가족친선의 밤’을 개최한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 이몽룡 회장은 “이제 우리도 인종, 성별, 피부에 따른 차별없는 사회가 되도록 일상 생활에서 유네스코 운동을 벌여야 할 시기다”고 말했다.

이 몽룡 회장은 “올해의 창립 기념식과 국제가족친선의 밤 행사는 우리 지역에 사는 외국인들의 이질적인 문화를 서로 이해해 세계평화라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러시아 영국 캐나다 몽골 탄자니아 등 25개국 300여명의 외국인들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행사에 참여한 나라들은 선진국, 강대국 뿐만 아니라 후진국, 소규모 국가 등이 적절히 참가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며 “참가 외국인들은 자국의 전통음악, 전통 의상 쇼, 합창 등을 통해 하나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는 외국인 100만명 시대와 더불어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지역 내 다문화가정의 좀 더 빠른 사회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지난 5월 조선대 치과대학과 협약을 통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과 자녀들에 대해 치과 치료를 해주고 있다. 또 조선대와 공동으로 다문화가정 회원들을 상대로 장학금도 주고 있다.

“외국인의 증가와 글로벌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외국인과 지역 학생들이 함께하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1명과 소수의 중·고등학생을 팀으로 묶어, 외국어 습득은 물론 외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은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가 지난 2003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아 매년 20여개 국가 60여명의 외국인 자원 봉사자들을 참가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초·중·고 60여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유네스코는 1945년 37개 대표국이 영국 런던에서 모여 유네스코 헌장을 채택하고 1946년 11월 4일 비준을 얻어 공식 탄생했으며, 광주·전남협회는 1965년 12월 13일 창립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사진=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단 1명을 위해서라도 전시는 계속될 것”

산골자락에 문화 향기 심는 보성 우종미술관 박용하 관장

“시골 미술관이라 관람객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단 1명이라도 작품을 보고 감동받을 수 있도록 좋은 전시를 계속 열겠습니다.”

여수에서 활동 중인 환경기업 ㈜와이엔텍 설립자 박용하(61) 회장은 직함이 돌이다.

여수상공회의소 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기업 경영에 수완을 발휘한 사업가이며, 보성군 조성면 보성컨트리클럽에 위치한 우종미술관의 관장이기도 하다.

그는 생전에 미술품 수집을 하던 선친 고 박우중 선생 어깨 너머로 산수화와 신선도 등을 접했고, 집에 머무르던 화가들을 보면서 미술에 대한 사랑을 키웠다.

평생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1천200여점의 미술품을 소장하게 된 그는 지난해 10월 아버지의 이름을 딴 우



종미술관을 개관했다. 그는 “좋은 작품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며 감동과 즐거움을 나누어야

한다”면서 “시골 마을의 아름다운 자연과 예술의 감동이 함께 어우러지는 멋진 풍경을 만들기 위해 미술관을 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개관전으로 선보인 ‘현대미술의 발자취’전에 박수근과 천경자, 백남준, 이우환, 최상목, 마르크 샤갈, 이시타 테츠야 등 수준 높은 작가들의 작품을 대거 선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지역 작가들의 초대전을 1년에 2차례 이상 열어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를 제공하고, 지역미술인의 창작도 지원하는 미술관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우종미술관은 내년 2월28일까지 중인 서양화가 황영성(68·조선대 명예교수) 화백의 신작 50여점을 선보이는 초대전을 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북구 자동차세 징수 2년 연속 ‘최우수’

광주시 북구는 최근 광주시에서 주관한 5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2009 자동차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당해년도 및 당해년도 이전 자동차세 징수실적 등 3개 분야 12개 지표를 종합평가한 이번 평가에서 북구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지방세 체납징수 기동반을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제를 실시, 체납세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북구는 광주시로부터 상 사업비 2천500만원을 받게 된다.

송광은 북구청장은 “현재 ‘고지서 송달지 인터넷신고 서비스’ 등 다양한 주민 편의 납세시책을 추진 중인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을 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조선대 ‘발명특허 대전’ 최다수상



‘2009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및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 조선대 교수가 전국 대학 가운데 최다수상을 기록했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 주관으로 최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조선대 김태형 교수(의화전문대학원 의학과·사진)가 준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또 김시욱 교수(공과대학 환경공학과)가 금상, 기계공학 학과 정상효교수(공과대학 기계공학과)가 은상 및 대안특별상을 수상했다.

세계 30개국 470개의 발명품이 한 자리에서 전시된 대회에서 준 그랑프리 수상한 김태형 교수의 ‘세포사 유도 펌프이드’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치료용 단백질 의약품에 관련된 기술로, 펌프이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길이가 짧아 생선이 쉽게 저림을 뿐만 아니라 유사 함량제인 TRAIL나 Crisplatin 보다 9배나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강하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한국불교 전통 ‘불복장’ 의식보존회 창립

사단법인 한국불교 전통 불복장 의식보존회 창립총회가 12일 태고종교불종림 선암사 주지 경담 큰스님, 담양불교연합회장 신원 스님, 한나리당 박재순 최고위원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담양읍 지리다 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렸다.

이날 창립총회 후 뚝다법사 이국재씨와 서정거사 최성원씨가 집필한 전통불복장 조성절차집 출판기념회와 담양 용화사 주지 수진스님의

불복장 세미나 등이 계속됐다.

이날 출범한 사단법인 한국불교 전통 불복장 의식보존회는 불상에 복장물을 넣는 불복장 의식 등 불교의 전통문화유산을 계승·보존·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인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뚝다법사 이국재씨는 “불상에 복장을 넣는 의식이 있어서 비로소 불상이 단순한 물건이나 감상의 대상이 아닌 신앙의 대상이 된다”며 “앞으로 일반대중과 외국인들이



이러한 전통불교문화를 느끼고, 이러한 의식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프로파이낸셜, 동구 불우이웃에 김치 전달



‘러시안 캐시’ 브랜드로 유명한 아프로파이낸셜그룹 광주·전남 6개 지점 직원들은 지난 12일 광주 동구청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불우이웃에게 전해 달라며 유태영 동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최현배기자 choi@

동아병원 ‘사랑의 김장 담그기’



동아병원(대표원장 정근호)은 지난 12일 남구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과 소외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전개, 80여 곳에 김치를 전달했다.

밝은광주안과·빛고을노인복지재단 협약



밝은광주안과는 최근 광주 빛고을노인복지재단과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밝은광주안과는 개인수술 지원과 정기의료봉사, 건강강좌 등을 실시하게 된다.

광주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방철호가 주최하고 해양도시기상(대표 정영준)이 후원한 ‘사랑의 김장담그기 나눔’ 행사가 지난 12일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열렸다.



광주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방철호)가 주최하고 해양도시기상(대표 정영준)이 후원한 ‘사랑의 김장담그기 나눔’ 행사가 지난 12일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열렸다. (광주사회복지협의회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측

▲국영현(영암 도초초등학교)·김미숙(곡성 중앙초등학교)씨 차남 창훈(곡성군 기척에산실)군 선종남(경신건설)·조복희씨 자녀 율미(국민은행 문흥동지점)양=20일(일) 오전11시40분 메리어트웨딩홀 1층(사파이어홀)

동창·동문회

▲송의고 동문회(회장 양석승) 2009년 14차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18일(금) 오후 7시 서구 마복동 아이리스웨딩홀. 062-385-7800.

향우회

▲재광구례향우회(회장 양정훈) 송년의밤=18일(금) 오후 6시30분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2009 송년의 밤 맨스페스티벌=19일(토) 오후 4시30분~8시 고영우&박미숙댄스스포츠스쿨. 062-227-3693.
▲사주 쉽게 배우 분 개인·단체 환영=광주시 북구 우산동 자담역 리학회. 062-263-0208.
▲회귀화제 전시회=31일까지 광주공화지철역역무실 앞. 은대(세계최초로 화제를 사용한 시대) 때 동물 뼈로 만든 골제과화 등 33년간 직접 수집한 화제 500개 전시. 문의

모집

▲국립나주병원 자원봉사자 모집=2주 1회 정기적으로 목욕 도우미 및 이마용 서비스, 정서지원 및 함께 운동하기, 노래 및 요가교실, 스포츠댄스 및 에어로빅, 자원자격을 대학 생 및 현업 종사자. 문의 061-330-4169.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 수시 모집=중앙 초등학교 아침 5시30분~7시 30분. 010-9877-6166
▲용마 축구클럽 회원 모집=건강한 생활 축구에 관심 있으신 분 환영, 용산 초등학교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 7~11시까지. 011-607-7462.
▲마술회원 모집=매주 토요일 오후 1시~2시20분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디지털카메라 회원모집=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재봉틀 휴폐선 회원모집=매주 월요일 오전 10~11시50분,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동구문화센터 겨울학기 문화강좌 회원모집=홈페이지 www.macj.kr 또는 동구 문화센터. 062-225-8700.
▲김순덕 노래교실회원모집=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12시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모집

▲김정경 노래교실회원모집=매주 월요일 오후 2시~3시30분 동구 문화센터 062-225-8700.
▲색소폰 교육회원 모집=매주 월요일 오후 6~8시 동구 문화센터. 062-225-8700.
▲진월오양보호사 교육생 모집(국비지원, 능력개발카드 소지자 혜택)=주간반(오전 9시~오후 5시50분), 야간반(오후 6시30분~10시) 062-653-6690.
▲GS 피부미용, 네일아트 학원 교육생 모집=피부 국가자격증반, 네일아트,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등 자격증반·취업반·강사반 등 모집, 서구 쌍촌동 5·18문화센터 맞은편. 062-381-5051.
▲풋볼프 회원모집 및 친선경기 주장원 선발=발로 불을 차 흩에 넣는 풋볼프 회원 모집, 매주 토·일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광주첨단교통공원 뒤 풋볼프장. 010-4604-4608.

광주시 학생교육원 교학부장)씨 모친상=발인 15일(화) 강진군 군동면 덕천리. 010-9494-2045.
▲정삼린씨 별세 고음석(광주일보 중양지국장)·홍석(광주일보 우산지국장)·훈석(동양생명)·갑순·순심·채영씨 모친상=발인 15일(화) 그린장례식장. 062-250-4455.
▲조양남씨 별세 전호일·호삼·호철(동부경찰서)·호진(청수원 이사장)·애선·희순씨 모친상=발인 15일(화)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김점용씨 별세 대원(전남경찰청)·대건(금호타이어)·복순씨 부친상=발인 14일(월)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송태봉씨 별세 기성·기영·기범·기문·기두·순임씨 부친상=발인 14일(월) 화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배승오씨 별세 정곤·영곤·중곤·진남·용임씨 부친상=발인 14일(월) 화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김만풍씨 별세 서재일·재이·정화·희희·판례·영애씨 모친상=발인 14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민정숙씨 별세 김윤상·경상·경원씨 모친상=발인 14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두번 슬로게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 프리드 샌드백형 빗대시템. 현대중앙상조. 가임폰트 1566-4499